

사랑이라는 위대한 것 (11): 사랑의 충만함 을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
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
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2026-1-13

XI.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그리스도
와 함께 걸어가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성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파스카 만찬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례 없는 행위를 소개합니다. 모두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요한 13,4-5).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터전이 될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호수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스승이 수많은 군중을 먹이실 능력에 대해 의심했으며,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파르

나움 회당에서의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이 설교 이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났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따라 이어지는 그분의 긴 여정을 동행하며,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악하며 바라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반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요한 13,5-8). 시몬의 대답이 지닌 급진성이 놀랍습니다. 이는 거부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틀렸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한 13,8).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승과의 첫 만남부터 시몬 베드로는 내적 성장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조금씩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난이 다가오면서, 그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두 장면이 이어어집니다 - 발 씻김과 성체성사의 제정 - 이를 통해 베드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 까지 이르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요구되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순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에게 여전히 하나의 명제일 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깊이로 그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발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스승과 자신을 위해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든 겸손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에 대한 큰 열망과 덜 고귀한 의도들이 뒤섞입니다. 종종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들로 우리의 입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석임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세월의 흐름, 변화하는 상황,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일상의 피로는 때때로 우리 길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을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영적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개인

적 신비를 축소시키는 여러 왜곡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감정주의: 하느님과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물에 반응하는 것,
- 의지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당 부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맡기는 것임을 잊는 것,
- 완벽주의: 인간의 결함을 하느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향,

이러한 왜곡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왜곡해도, 놀라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는 무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합니

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요한 13,8-9).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움직이는 것이 사랑임을 아시고, 그래서 같은 급진 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의 특징인 격정으로 반응합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이 말들은 매우 급하게 내뱉은 것이었고, 그는 그 말들의 의미를 그 순간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난의 고통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작용 아래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걸어가는 첫 단계가 각자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과 부드러움을 발견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정된 비참함을 통해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의 계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승하는 길로서 힘들지만, 동시에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자유로울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1코린 13,7)”. 아직 젊은 사제였을 때, 성 호세마리아는 충실한 자유의 상승 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계단: 하느님의 뜻에 체념하기,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기, 하느님의 뜻을 원하기,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기.”[184]

체념은 자유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네 가지 중 가장 덜 관대한 태도로, 쉽게 영적 미지근함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 없는 견딤, 즉 ‘견디기 위해 견디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묘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저항을 통해서 자유를 배우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념은 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인식하기 때문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동안 이런 태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체념에 머물면 점차 슬픔이 마음을 침범합니다.

반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더 높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삶의 형태에 맞춰지고,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응을 평범한 사람의 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살아갈 꿈, 계획,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좋은 소망이 하느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현실적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응하는 사람은 조금씩 하느님의 논리에 들어가기를 배우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로마 8,28 참조). 성 호세마리아는 때때로 성경

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충실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 옹기장이의 손 안의 진흙처럼. 그래서 제가 살지 않고, 당신께서, 사랑이신 분께서 제 안에서 살고 활동하실 것입니다”.[185]

하느님의 뜻을 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순응의 과정은 이미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당신께서, 사랑이신 분께서 살고 활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186]라고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 바오로와 함께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

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
다.”(로마 8,38-39)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물의 불완전
함 한가운데서 상황들이 숨기고 있는
그 “거룩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187] 하느님의 모상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나
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혈에 스며들어.

이 개인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우
리를 사랑 앞에 놓습니다. 그렇게 우
리는 성 요한이 가르쳐 주듯이 그리
스도교 계시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
습니다.”(1요한 4,16).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
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5).
이제 그들은 새 계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으로, 그분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요한 10,17-18). 그리스도교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내어 주는 것, 자기 자신에서 나가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바라신 현실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내부로부터 밀어내어 우리 자신에서 나가게 하는 기쁘고 창조적인 확신이며,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6,25).

그러나 이 사랑은 “일종의 극단적인 도덕적 노력, 인본주의의 더 높은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188] 새 계명의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선물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189].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계시하시는 동시에 사도들에게 사랑의 성사를 주십니다. 성체성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교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 진리가 아니라 생명적 필요입니다.[190]

“그리스도의 손이 밀밭에서 우리를 잡아내셨습니다. 파종하는 이가 상처 난 손으로 밀 한 줌을 움켜くなります. 그리스도의 성혈이 씨앗을 적시고, 스며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그 밀을 공중에 던지시니, 죽음으로써 생명이 되고, 땅에 묻혀서 황금 이삭으로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혈에 스며들어 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며, 그 성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에게 죽어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그 분의 실재적 현존을 흡수하는 것은 중단 없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는 하느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성체의 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체를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알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죽고, 생명으로 가득 차서 부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백 배로!”[192]

성체적 일치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서 그려졌듯이 우리 가운데를 걸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거리를 지나시고, 멈춰 서서 서두르지 않고 우리 눈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매력적이고 매혹

적입니다”[193]. 누군가가 그분 곁을 걸어가기로, 그분과의 친교 안에서 살 기로 결심할 때, 삶이 밝아지고 점차 진정한 “성체적 일치”를 얻게 됩니다. [194]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는 사랑과 가까움이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몰아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무 이행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경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봉사에서 지나칠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의 한계 앞에서 이해 부족,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행의 인정을 요구하여 의향의 정직함을 흐리게 하는 교만.

성 호세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기쁜 삶에 대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길은 - 그는 말했습니다 -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랑하기. 사랑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느끼는 것,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195] 우리는 이것이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과 같은 크기의 마음을 주시도록 자주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명료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 오직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재현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밀알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만 우리는 땅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결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196] 이것이 충실함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므로 행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폴 뮐러 신부

[184] 성 호세마리아, “길”, 774번.

[185]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875번. 예레미야 18,6 참조: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라”.

[186]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한 영혼의 이야기”, 1장.

[187] 성 호세마리아, “대화”, 114번 참조.

[188] J. 라칭거 --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 Encuentro, 바르셀로나 2011년, 81쪽.

[189] 같은 곳, 82쪽.

[190]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54번 참조.

[191] 같은 곳, 3번.

[192] 같은 곳, 158번.

[19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2019년 3월 25일), 277번.

[194]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2007년 2월 22일), 83번 참조.

[195]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58번.

[196] 같은 곳.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sarangiraneun-widaehan-geos-11-sarangyi-cungmanhameul-hyanghae-geuriseudowa-hamgge-geoleogagi/>
(2026-2-2)